

구라보 - “일촌일품운동”의 강화로

신상품 개발에 총력 동원

◎ 공장장을 프로젝트 · 리더로 하고, 영업과 함께 개발 추진

구라보는 5개 면방직공장 각각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대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들 프로젝트가, 그 동안 본사의 면 · 합섬사업부(綿合纖事業部)를 거점으로 하여 추진하면서 점차 순조롭게 궤도에 진입하게 되자, 이 “일촌일품운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본사에 있는 각 프로젝트의 거점을 해당 공장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 면방공장의 공장장은 주로 생산원가, 공장운영비, 생산품의 품질 등의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구라보는 이들 관리업무의 비중을 낮추고 “공장장의 첫째 임무는 개발”임을 밝히면서, 각 공장장을 그 공장의 “일촌일품운동”의 프로젝트 · 리더(project leader)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공장마다 영업부원과 기술진이 한 자리에 모여, 그 공장의 특성을 살린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라보는 2002년 들어 이러한 방침에 따라 야스끼(安城)공장은 미국 톱 · 브랜드(top brand)수준의 캐주얼 옷감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마루까메(丸龜)”공장과 “간논지(觀音寺)”공장은 양말, 타월, 니트용 실을 개발하고 있으며, “호쥔(北條)”공장은 특수 천연 섬유로 뽑은 실의 개발을 추진중이다. 일본의 면방직업계에서는 최근에 “공장과 영업부문과의 심리적 거리(心理的距離)를 좁히는 것이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라보는 “일촌일품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방

법을 실천하고 있어 다른 면방회사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 기술부의 개편으로 개발 사업을 효율화

구라보의 면·합섬사업부는 이제까지 기술부를 제조공정별로 제조과(製造課), 가공개발(加工開發)과의 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금년 10월부터 생산, 개발, 기술서포트(support)의 3개 분야로 개편하고, 각 분야마다 방적에서 봉제까지의 전문기술자들을 배치함으로써, 모든 기술자가 하나가 되어 보다 우수한 신상품을 개발해내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으로 모든 문제점을 각 공정의 기술자들이 쉽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부의 새로운 “기술서포트”부서는 면·합섬 사업부에서 개발한 소재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주기 위한 부문으로서, 구라보가 개발한 소재뿐만 아니라 이 소재로 만든 최종제품의 품질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구라보가 개발한 옷감으로 중국에서 봉제하려는 고객에게 봉제방법이나 봉제 후의 세탁방법 등을 지도해 준다. 구라보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일본에서 실이나 옷감의 제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기술지원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